

## ■ 오타루시(小樽市) 오타루운하

(개요) 오타루시는 유휴 자원의 성공적인 활성화 사례로, 영화 [러브레터]의 배경이 되어 명성을 얻고 있으며, 아담한 오타루 운하거리는 일본적이면서도 유럽적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연인들의 명소로 손꼽힘

- 위치 및 교통 : 홋카이도 남서부, 삿포로에서 열차로 40분 소요
- 운하 면적 : 수심 2.4미터, 폭 20~40m, 총 길이 1,324m

(역사) 1920년대 북해도 물류거점 도시로서 발전한 오타루시는 제2차 대전 후 운하의 기능이 사라지며 급격히 쇠퇴함. 1960년대에 쓸모없어진 운하의 매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곧 수정하여 산책로, 가스등, 돌 포장, 가로공원을 새로 설치하여 연간 7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활기 넘치는 도시로 재생.

### (주요 시설)

- **오타루 운하** : 오타루를 ‘연인의 도시’라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이미지로 바꾼 중심 지역, 운하를 따라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 가스등, 리모델링한 옛 건물들이 낭만적인 경관 창출
- ※ 눈빛길 축제 : 2월에 열리는 눈등롱 축제때는, 운하의 물 위에 등을 띄우고, 운하를 따라 난 길가에 눈으로 열개를 만들어 그안에 초를 넣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함.
- **운하주변 벽돌 창고** : 약 60여동에 이르는 창고들은 대부분 1890년대에 조성된 것. 대형의 창고건물은 토산품 판매점과 식당으로, 회사 사무실은 유리 공예품 판매점, 오르골 판매점 등으로 활용. 대표건물 운하창고식당, 오타루 창고NO1, 운하창고 등
- **옛 금융기관 석조건물** : 일본은행 오타루 지점, 북해도 척식은행 등 옛 금융기관의 석조 건물들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활용.
- **유리 공예와 오르골 매장** : 유리공예, 오르골로 대표되는 관광 상품을 특성화하여 리모델링한 근대 건축물에서 체험 및 판매

### (도시재생 성과 및 시사점)

- 오타루 운하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의 거리 활성화, 건축의 역사적 가치를 유지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의 공존을 이루어냄
- **관광객 증가** : 운하 정비후 관광객 수는 170만명에 달하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15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임. (1985년 관광객 50만, 2006년 관광객

169만 6,500명)

- **관광 소득 증가** : 관광객들의 연간 소비액은 1,319억엔이며, 파급효과로 인한 매출은 2,688억엔으로 경제 산출액의 31%차지(2011년도 오타루시 통계)
- **효과** : 관광경제 파급효과로 인한 고용창출은 총1만 8,499명(시 전체 고용 효과의30.4%).
- **관련 제도** : 현재 오타루시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를 관리하고 있으며, 운하주변을 ‘경관형성지구’로 지정하여 보호, 운하주변의 창고들의 보전을 위해 ‘역사적 건축물 및 경관지구 보존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 **주민 참여** : 오타루의 보전 정책은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고 행정기관은 2차적 협조역할 수행, 일본의 도시재생은 전문가와 주민 그리고 행정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음



그림 1 오타루 운하



그림 2 창고를 개조한 상점



그림 3 일본은행 구 오타루 지점

## ■ **삿포로 오오도리 공원(大通公園)**

(개요) 삿포로 오오도리 공원은 도시부 녹지화를 통해 성공한 사례. 홋카이도에서 가장 넓은 공원으로서 관광객들과 삿포로 시민들을 위한 휴식 및 놀이공간을 제공.

- 위치 및 교통 : 삿포로 도심의 중심부 (중앙구 서1초메~12초메까지 길이 약 1.5km) 삿포로역에서 5블록 정도 떨어져 있으며, 걸어서 5~10분 소요.
- 면적 : 총 면적 78.901m<sup>2</sup> (길이 1.5km, 폭 65m)

(역사) 1871년, 도시 조성시 북쪽의 관청가와 남쪽의 주택, 상업가로 나누는 기준점으로서 오오도리공원 조성. 2차 세계 대전 전후 고구마 밭으로 사용되거나, 패전 후 쓰레기가 방치되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후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개발

### (주요 시설)

- **TV타워** : 공원의 동쪽 끝에 위치한 높이 147.2m의 TV타워는 삿포로의 상징적 존재이며, 밤에는 조명을 비추어 아름다운 야경 연출
- **조경과 식생** : 삿포로 시 꽃인 라일락을 비롯하여 92종, 약 4,700그루의 나무, 화단에서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을 감상.
- **오브제와 분수** : 유명 조각가들의 오브제와 분수가 있다. 특히, 3초메의 분수에서는 15분 동안 16가지의 변화를 구성

※ 축제와 이벤트 - 초여름(6월 중순) 요사코이 소란축제 / 여름(7월 중순~8월) 비어가든과 봉오도리 / 겨울(12월~1월) 화이트일루미네이션 / 겨울(2월) 유키마쓰리 눈축제(홋카이도 최대의 동계 행사) 개최.

### (도시재생 성과 및 시사점)

- **발상의 전환** : 겨울철 대설로 인한 피해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막대한 관광 수입 창출, 매년 눈 축제 기간에는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약 2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 도시 중심에 대규모 녹지 공간 조성 : 관광객 및 삿포로 시민들을 위한 휴식 및 놀이공간 제공, 삿포로의 대표적인 관광 이벤트 장소로서 삿포로 시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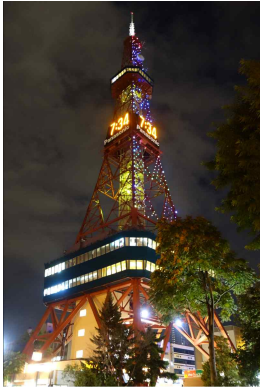


그림 4 삿포로 TV타워



그림 5 오오도리 공원의 벤치



그림 6 삿포로 시내풍경



## ■ 온천도시 노보리베츠(登別 温泉) / 미방문

(개요) 지역 자연환경을 이용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 현재 약 2만 6천여개의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3대 온천의 하나, 하루에 약 1만 톤의 온천수 용출.

- 위치 및 교통 : 홋카이도 남부, 신치토세 공항에서 1시간 10분거리에 위치

(역사) 홋카이도의 온천 중에서 처음으로 숙박업을 겸한 온천지역으로 발달, 에도(江戸)시대부터 그 존재가 알려져 메이지(明治)시대에는 온천 여관이 생기면서 휴양지, 관광지가 됨. 특히, 유황 원천과 황산염 원천이 유명

### (주요시설)

- 유황온천과 지옥계곡(지고쿠다니, 地獄谷) : 직경 450m의 화산 폭발의 흔적으로, 매분 3,000L, 하루 1만 톤의 온천수 용출(11가지 종류의 온천). 붉게 변해버린 바위, 화산 가스, 유황 냄새가 마치 지옥의 계곡과 같다고 하여 이름이 붙음.

※ 노보리베츠 축제 (노보리베츠 지코쿠 마츠리) : 매년 8월말 지고쿠다니의 뚜껑이 열리고, 염라대왕이 붉은 도깨비와 푸른 도깨비를 데리고 마을을 찾아온다는 노보리베츠 최대의 축제. 큰길을 따라 백개의 북을치며 시작을 알리는 ‘마에부레타이코’와 ‘지옥대행렬’, ‘도깨비춤 대군무’ 등 다양한 행사.

- 노보리베츠 다테지다이무라(登別伊達時代村) : 센고쿠 말기부터 에도시대까지를 재현한 민속촌. 당시의 건축물과 풍물로 완벽하게 재현한 약 100동의 건물은 전부 시대 고증을 기초로 만들어진 목조 건축물.

- 그 외 테마 파크 : 곰목장, 노보리베츠마린파크니쿠스, 노보리베츠 다테지다이무라, 노보리베츠 마린파크닉스 등

### (도시재생 성과 및 시사점)

- 자연환경 온천수의 성공적인 개발로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 수요  
- 온천마을 전체적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옛부터 내려오는 마을의 마스코트인 도깨비를 이용하여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등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성공.

## ■ 하코다테(Hakodate, 函館)

## 1. 하코다테시(函館市) 개요

### 가. 일반 현황

- 하코다테시는 면적 677.95km<sup>2</sup>의 일본 홋카이도 남부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홋카이도의 관문이자 물류의 결절점
  - ① 하코다테시는 인구 28만으로 홋카이도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2005년 중핵시로 지정되었으며, 주요산업으로 어업과 관광을 겸하고 있음
  - ② 지리적 위치상 삼면이 바다에 접하고 있으며 일본 본토인 혼슈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메이지 시대부터 해운이 발달한 교통의 요지로서 홋카이도의 남쪽 관문이자 물류의 결절점임
- 일본 최초의 국제 개항장으로 1859년 서양에 문호를 개방하여 1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일본의 대표적인 미항
  - ③ 1859년 미·일 수호 통상조약에 의하여 일본 최초의 국제 무역항으로 개항되어 영사관 및 외국인 거주지들이 밀집되었으며, 이에 홋카이도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 도시로 발전되었으나, 1871년 행정청이 이전함에 따라 행정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상공업과 복양 어업기지로 성장함
  - ④ 2011년 3월 발생한 사상최악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한 때 유령도시로 전락하였으나,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여 여전히 도시 곳곳에 개항기의 유럽 건축물과 일본식 주택들, 그리고 양자가 혼합된 절충식 건축양식들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정취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요 문화재가 밀집하고 있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도시임
- 하코다테시 서남쪽에 위치한 하코다테산에서 바라보는 항구도시의 야간경관은 홍콩, 나폴리와 더불어 세계3대 야경 중 하나로 손꼽힘



## <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

출처 : 두산백과 doopedia

## 1. 하코다테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

### 나. 하코다테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의 배경

- 하코다테시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상업·업무핵의 분산화에 따라 중심 시가지에 빈 점포가 증가하고 대형점포가 출점하는 등 전통 상업기능이 노후화되며 기존 상점가가 쇠퇴해 가고 있음

① 기존 중심시가지인 역전과 다이몬지구의 인구가 1975년부터 2005년까지 약 50%가 감소하였으며, 고령 세대의 비율이 25.3%(2005년), 연간 상품판매액 수가 1994년부터 3위로 하락하였고, 경기가 활발했을 때에 비해 보행자 통행량 및 종업원의 수가 감소함

- 1999년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2006년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의 개정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07년 계획책정을 개정함

② 하코다테역전토지구획정리사업(1998~2004), 借上시영주택공급사업(1999~), Challenge Shop 사업(2003~), 서부지구 Young Couple 주거지원사업, 그린프라자 서비스(1983~) 등의 사업을 진행 중

### 다. 하코다테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의 내용

- 하코다테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은 약 48ha의 하코다테역전과 다이몬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바닷바람과 역사의 로망이 풍기는 활기 있는 마을만들기’를 기본개념으로 함
- 활성화 계획은 7개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계적 시행을 위해 시책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함.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침으로 1.거리의 심볼이 되는 거점 형성과 도심축 만들기, 2.아름다운 거리 풍경의 형성, 3.교류거점으로서의 상점가 만들기, 4.주택 복합시가지의 형성과 도심주택의 공급 시스템 만들기, 5.민간투자의 유발에 의한 노후건물의 갱신, 6.걸고 싶은 가로만들기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정비, 7.공공교통을 주체로하는 교통시스템 개선을 제시하고 있음

② 단계적 시행을 위해 1단계에서 중점 정비지구를 정하고 집중 정비를 실시하는 1단계, 관·민이 협력한 모델프로젝트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2단계, 민간 활력이 유발되어 자주적인 갱신이 진행되는 마을만들기로 유도하는 3단계로 구분하여 시책을 시행함

-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일체적 추진 방책으로 파트너쉽에 의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추진체제의 정비를 통해 종합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며,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함



[그림 7]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 범위



[그림 8] 중심시가지 빈 점포 현황

출처 : 하코다테 중심 시가지 활성화 기본 계획(2013)

#### 라. 하코다테시의 경관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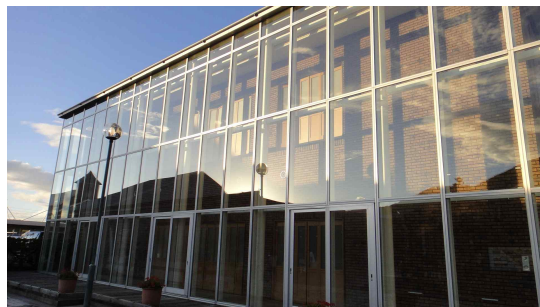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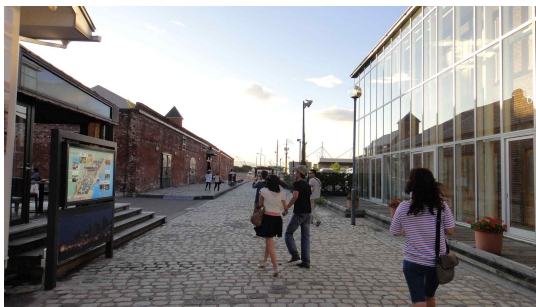
- 1986년 ‘도시경관보존대책사무소’를 설치하고, 1988년 하코다테시 서부지구에 역사적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역사적 경관지역을 지정함
- 1989년 경관을 형성하는 지정건축물에 대한 보존 기준을 설정함
- 1994년 하코다테시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한 이후 1995년에 하코다테시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함
- 2004년 시경계가 확대되면서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이 풍부해 졌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하코다테시 전역을 경관계획구역으로 설정함
  - ① 경관계획구역에서 경관형성을 위해 1.하코다테다움의 보존과 강조, 2.도시경관상의 특징 보존과 활용, 3.풍요로운 도시환경의 실현이라는 3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음
  - ② 또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색채 변경 등 외관의 변형이 이루어 질 때 행위에 제한을 적용하며, 특정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관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2. 주요 사례 답사지

### 마. 카네모리 붉은 벽돌 창고군

- 카네모리 붉은 벽돌 창고군은 1908년부터 1910년에 걸쳐 건립된 최초의 영업용 창고로 산업시설이었던 창고를 상업시설과 전시시설로 재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 재생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지

- ① 카네모리 창고는 지상1층의 영식쌓기로 지어진 벽돌조 건물로 건립당시 오징어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항구 창고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음
- ② 1985년 시대 상황에 맞게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외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만 새롭게 개조하여 1988년 붉은 벽돌 창고 3개 동이 다목적홀, 쇼핑몰, 비어홀로 이루어진 '하코다테 히스토리 프라자'로, 이와 인접한 붉은 벽돌 창고군 중 2개동이 레스토랑과 상점으로 이루어진 'BAY 하코다테'로, 1994년 사용하지 않던 창고 1개동이 '카네모리 양풍관'이란 이름의 쇼핑존으로 재탄생함
- ③ 이는 앞서 역사적 건축물을 재활용한 구 하코다테 우체국(1983)의 성공에 영향을 받았으며, 역사적 건조물로서 창고의 재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됨
- ④ 카네모리 붉은 벽돌 창고군 주변은 하코다테시가 지정한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 중 하나로 역사적인 건조물과 현대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코다테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꼽힘



[그림 9] 카네모리 아카렌가 창고군 1





[그림 10] 카네모리 아카렌가 창고군 2

- 하코다테시 1호 우체국인 하코다테 우체국은 1911년 건립되었으며, 우체국으로 사용할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용도를 상업시설로 전환한 사례

- ⑤ 구 하코다테 우체국은 벽돌조의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어 1962년까지 약 50년간 우체국으로 사용되었으며, 1962년 민간에게 분양되어 창고로 사용되다가 폐허로 변하여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1983년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공예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그들 스스로 수복한 뒤 유니언스퀘어란 이름으로 개관함
- ⑥ 현재는 메이지관(明治館)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작업실, 상점, 체험 공간,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입점해 있는 쇼핑몰로 사용되고 있음



[그림 11] 구 하코다테 우체국

#### 바. 고료카쿠 타워

- 고료카쿠는 유럽의 성곽을 본떠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서양식 성곽으로 1857년부터 1864년까지 약 7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방어의 사각지대가 없는 별모양으로 축성되어 고료카쿠(五稜郭)라고 함
- 고료카쿠 타워는 고료카쿠 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4년 고료카쿠 축성 100주년을 기념하여 고료카쿠의 별모양을 모티브로 처음 60m 높이로 건립되어 41년간 사용하였고, 2006년 증축하여 현재 피뢰침을 포함하여 107m에 이름
- ① 고료카쿠 타워의 전망대에서는 고료카쿠 공원과 하코다테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시설과 고료카쿠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전시시설 등이 있음



[그림 12] 고료카쿠 타워(좌)와 고료카쿠(우)

#### 사. 하코다테 구 공회당

- 하코다테 구 공회당은 1910년에 세워진 메이지 시대 대표적인 서양식 목조 건축물로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
  - ① 하코다테 구 공회당은 하코다테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국의 고전 건축양식인 콜로니얼 양식으로 세워진 좌우대칭의 2층 목조 건축물로서 본관과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있고, 건립 당시 가장 현대적인 건축물이었음
  - ② 1907년 발생한 대화재로 시민집회소가 소실되자 공회당 건설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후 시민 헌금운동으로 모인 8천엔과 대부호 소마 텃페(相馬哲平)가 기부한 5만엔을 합친 총 5만 8천엔(현재 약 130억원)의 예산으로 건축됨
  - ③ 블루그레이와 옐로우 톤의 색채가 대조를 이루며 자아내는 화려한 색조가 인상적인 건축물로 독특한 건축장식 및 건축기법, 보존 상태 등이 높이 평가되어 1974년엔 본관, 1980년엔 부속 건물이 각각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됨
- 황족들의 주요 행차시 숙소 또는 휴게소로 사용된 유서 깊은 건축물로 1957년부터 약 30년간 하코다테시 공회당으로 사용되었으며,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약 3년에 걸친 보존·수리공사를 통해 현재는 전시관과 콘서트홀로 사용



[그림 13] 하코다테 구 공회당





[그림 15] 하코다테 구 공화당 주변모습

#### 아. 하코다테 야경

○ 하코다테시의 야경은 홍콩, 나폴리와 더불어 세계3대 야경으로 손꼽힘

- ① 하코다테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는 하코다테산 정상과 고료카쿠 타워가 있으며, 이 중 하코다테산 정상은 일본 최대의 야경명소로 유명함
- ② 하코다테산은 하코다테시 서남쪽에 위치한 해발 334m의 산으로 정상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밤에는 하코다테시의 시가지와 항구의 야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낮에는 시모기타 반도까지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경은 하루 중 노을이 질 무렵부터 밤까지가 가장 아름답고, 일 년 중 가을과 겨울이 가장 아름답다고 함
- ③ 하코다테시의 야경은 하코다테시 관광의 핵심이며, 이에 2001년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홋카이도 유산으로 선정함



[그림 16] 하코다테산에서 바라본 야경

## ■ 아오모리시(青森市)

### 1. 아오모리시(青森市) 개요



<일본 아오모리현 아오모리>



출처 : 두산백과 doopedia

- 혼슈(本州)의 최북단에 위치한 면적 824.58km<sup>2</sup>, 인구 30만명 규모의 상업도시로 취업인구의 76.4%가 3차 산업에 특화한 산업구조를 가짐
- 아오모리현의 현청 소재지로 교통·행정·경제·문화의 중심도시
-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자동차도로, 공항 등 교통체계의 정비에 잘 되어 있는 교통거점으로 발전해 옴
- 눈이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8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네부타축제는 “도호쿠 4대 축제”중의 하나임
- 풍부한 녹지와 푸른 바다가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수산물과 농산물이 유명함

#### 1) 아오모리시의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 □ 아오모리시 도시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중심 시가지 지구는 도심지역에서 교외지역으로의 인구이동, 보행자의 교통량 감소, 중심상업지역의 구심력 저하 등으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도시정비에 따른 시가지의 확장은 교통량 증가로 이어져 교통정체, 소음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음
- 더불어 아오모리시의 핵가족화,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거주환경 정비 등의 도시계획이 요구됨
- 이러한 배경으로 기존의 특화·분산 중심의 도심기능에서 집약화·복합화하는 콤팩트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남
- 아오모리시의 콤팩트 시티는 시가지의 확대를 방지하고, 기성시가지의 자원을 활용한 상업의 활성화 및 커뮤니티 재생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의 기능들이 중심시가지 내부에서 대중교통·보행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짐

##### □ 콤팩트 시티 주요내용

##### (1) 도시의 구조

○ 이너시티(Inner-City), 미드시티(Mid-City), 아우터시티(Outer-City)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추진함

- 이너시티(Inner-City)는 구시가지로 기존의 생활공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정비를 계획하고,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근린상업의 재생을 유도하고 있으며, 미드시티(Mid-City)는 시가지의 확장을 완화하는 역할로 녹지와 양호한 거주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대중교통 환경을 계획하였다. 아우터시티(Outer-City)는 시가지 확장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징인 경관·환경을 보전하는 지역으로 계획하였다.

○ 도심의 ‘핵’과 ‘축’의 역할에 기반한 도시정비를 도모하면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구축하였음

- ‘핵’의 역할로는 생활·업무·상업·교류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시가지 지구, 지역교류의 거점으로 게이트웨이(Gateway)의 기능을 담당하는 세키에지구, 근린시설과 휴식의 기능을 담당하는 아오모리 주차장 철거지 지구, 교통·산업거점 등 도시의 골격을 담당하는 지구, 상업기능을 중심으로하는 지역커뮤니티 형성 지구가 있으며, ‘축’의 역할은 중심시가지의 방사축, 도시 교류를 촉진해 시가지 유입을 억제하는 도시교류축, 지역커뮤니티 거점을 연결하는 지역교류축, 도보·자전거 등에 의한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모하는 지역커뮤니티축이 있다.

(2) 분산화된 도시정비에서 구체적인 도시 기능의 배치를 통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3) 지역주민·기업·행정의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계획

○ 주민들이 도시계획의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콤팩트시대를 실현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를 통해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거침

☐ 향후방향

○ 버스, 철도 등의 공공교통을 활용한 중심시가지의 접근성향상 계획 추진

○ 중심시가지의 공지 및 빈 점포 활용방안, 인구유입과 주택단지 정비사업 등의 방안 수립

2) 아오모리시의 경관행정

☐ 2000년도에 “아오모리시 경관형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푸른 숲’,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세가지 기본이념을 토대로 아오모리만의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며, 시민과 함께 가꾸는 경관을 계획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제시함

☐ 하천경관·역사문화경관·온천지경관·도심지경관·조망경관 등 16개의 경관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 관리방향 제시함

☐ 법면·대형구조물·사인·담장 등 18개 과제별 경관관리기준 제시함

## 2. 아오모리 베이브리지(Bay Bridge)

|      |   |   |      |
|------|---|---|------|
| 구성   | 4차선 차도, 2차선 임항도로                        |   |      |
| 장소   | 아오모리시 아오모리 항에 위치                        |   |      |
| 디자인  | Precast concrete Cable-stay (main span) |   |      |
| 총 길이 | 1219.0 m (주 교각사이의 길이 240m)              | 폭 | 25 m |
| 개방   | 1992년 완공 후 두 개의 차선개방, 1994년 나머지 4개차선 개방 |   |      |

□ 베이브릿지는 아오모리시에서 가장 긴 다리이며, 본래 아오모리항구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 아오모리시의 핵심경관이 되었음. 특히 밤의 야간경관이 매력적임

□ 근처에 위치한 삼각형 형태의 아오모리현 관광센터가 “A”처럼 보이는 점을 연계하여 다리 외관을 “A” 모양을 상징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케이블은 세미팬형(semi-fan arrangement)으로 고정되었고, 다리의 메인타워는 고강도 콘크리트로 조성됨

□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서 Doboku Gakkai Tanaka상을 수상함



<전경 - 1>



<전경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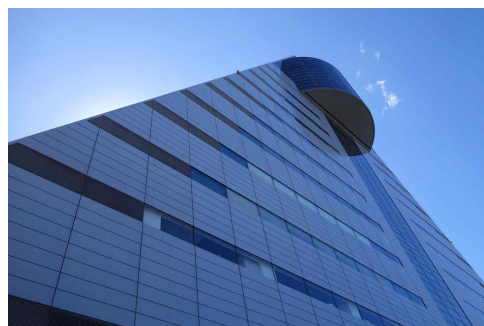
## 3. 아오모리 관광물산관(観光物産館) 아스팜(ASPAM)

□ 관광물산관 아스팜은 아오모리 항구 옆에 위치한 높이 76m, 정삼각형의 15층 건물

□ “아스팜(ASPAM)은 ‘Aomori(아오모리 현) Sightseeing(관광) Products(물산) Mansion(館)’의 약자이며 아오모리(Aomori)의 ‘A’자를 형상화 함



<전경 - 1>



<전경 - 2>

□ 관광물산관은 지역의 산업과 관광, 아오모리의 명물, 특산품, 공예품 등을 한데 모아 소개하며, 관광객뿐 아니라 아오모리 시민도 즐겨 찾는 문화공간임



- 360도 파노라마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2층 아오모리 홀이 있으며, 13층의 전망대는 아오모리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풍요로운 자연과 항구를 감상할 수 있음
- 아스팜 앞 광장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홀이 준비되어 있음



<전경 - 3>

#### 4. 아오모리 국제 예술센터(Aomori Contemporary Art Centre)

- 아오모리시의 예술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예술 감상뿐만 아니라, 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
- ACAC는 건축가 안도다다오에 의해 설계되어진 건축물임. 대상지의 지리적 기복을 파괴하지 않고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숲 안에 건물이 묻혀 “보이지 않는 건축”의 테마로 설계되어 짐
- 선형 모양의 “창조적 홀”과“주거 홀”, 갤러리와 원형 오픈스테이지의 구성으로 계곡을 가로지르는“전시 홀”은 이 곳의 대표건물이며, 예술가와 방문객들에게 예술체험의 장소가 되고 있음
- “예술과 자연”을 주요 테마로 하며 아오모리시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예술문화를 수출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임
- 국제 예술가, 작가를 초대하여 시민들이 실제 창조적인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워크숍 등의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함



<옥외 무대를 포함한 전시동>



<입구 전경>